

“지하수 오염 막자”... 특별관리구역 확대

도, '지하수 개발 과다' 서부·중산간 추가 지정 검토 고산-무릉 2.2km·중산간 471km... “오염원 선제 대응”

지하수 개발이 과다하게 이뤄진 제주 서부지역과 제주 중산간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계획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5월 초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2003년 6월 제주도 면적의 약 8.7%인 지하수 과개발구역 약 160km²이 대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구역별로 보면 ▷노형-신촌(43km²) ▷무릉-상모(38km²) ▷하원-법원(12km²) ▷서귀-세화(65km²) 등 4곳이다.

그러나 중산간 고지대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되면 하류지역 지하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장

래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지하수 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추가·확대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완료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안 마련 기초조사 보고서를 보면 ‘해수침투 우려 지역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과 ‘해발 300m 이상 고지대 지역 추가 지정’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서부지역은 평년 강수량이 1144mm로서 제주지역 평균 강수량보다 1000mm 정도 적은데 비해, 8~10월 과중하는 작물이 많아 지하수 이용량이 많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지하수위가 하강하면서 해수 침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산-무릉(2.2km²)’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 중산간 이상 고지대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및 오염원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미세하게나마 오염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산간 이상 지역(한라산국립공원 제외한 471.4km²)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확대 지정 대상을 확정하고, 상반기쯤 제주도의회에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동의안은 지난 2017년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심사 보류된 후 제10대 의회 입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처음부터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 후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서귀포시 지하차도 추진에 갈등 여전

도시우회도로 개설 관련 도교육청, 어제 설명회서 “지상 6차로→ 지하 4차로... 어린이공원 존치해야”

주민들 “상의 없이 추진... 갈등 증폭하는 행태” 비판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공원 부지의 지하차도에 대해 제주도교육청과 주민간 찬·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9일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된 현장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브리핑에서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 기존 지상 6차로를 지하 4차로로 변경해 어린이공원 5890㎡를 존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수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유아, 어린이, 학생, 시민들의 학습권 보장, 도심지 유일의 녹지공간을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제주도교육청은 29일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태윤기자

“이곳은 서귀포교를 비롯해 서귀포 북초 등 교육허브와 시민의 교육문화원 역할을 하는 교육중심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서귀포학생문화원 인근 주민들은 주민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하차도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순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하차도 반대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서귀포 도시우회도로는 서귀포학생

문화원이 들어오기 훨씬 전인 1965년부터 수립됐다”며 “주민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상도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 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민을 무시, 갈등만 증폭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30일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도교육청, 서귀포시 지역도의회, 서귀포시 등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차도 등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관련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제주경제혁신 희망아카데미

(사)제주희망포럼(이사장 오옥만)은 지난 27일 ‘제주경제혁신 희망아카데미’ 개강식을 열어 오영훈 국회의원의 초청 강연을 개최한데 이어 5월 강의를 이어간다고 29일 밝혔다.

5월 강의는 둘째 주 토요일인 5월 11일 오후 2시 W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라정임 박사가 ‘제주발전 전략 모색-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 강승진 제주연구원 박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형 6차 산업발전전략 연구’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743-1989. 표성준기자

의 환경보존 및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세미나



지난 26일 JDC 대회회의실에서 ‘제주 환경보존 및 재난안전관리 방안 모색 세미나’가 개최됐다.

“재난시 드론 투입, 민간 협업 중요”

JDC 안전관리 방안 세미나서 인력·비용 분담 등 논의 강조

제주지역 재난상황 발생 전후 드론을 활용해 인력활동의 부족과 안전사고지대 보완 및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기철 교수(한국국제대학교 항공부품공학과)는 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주최로 JDC대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의 환경보존 및 재난안전관리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재난, 의료, 기상, 정보통신, 예술, 방송,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드론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분야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지원, 운용비용 분담, 업무분담의 범위 등 공공기관, 기업, 관련 단체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준봉 JDC 경영기획본부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과 민간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제주의 드론산업 활성화 등 미래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대모기자

일자리 창출 법인 세금 감면

서귀포시는 내달 25일까지 일자리창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접수를 받는다.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도에내 분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외국법인으로서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추가근로)한 법인이다. 감면대상 시 법인등록분 주민세는 전액 면제되고, 자동차세는 법인소유 업무용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하는데 추가근로 인원 수에 따라 감면대상 자동차 대수가 달라진다. 이태윤기자

가정의 달 꽃자왈·숲속 행사도 ‘풍성’

꽃자왈도립공원·치유의숲 등 가족 소통 위한 프로그램 준비

가정의 달인 5월, 꽃자왈과 숲에서 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가족간 소통과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제주꽃자왈도립공원(신평리장 신승범)은 5월 4-5일 청소년들과 함께 ‘꽃자왈! 걷고 그리고 느끼다’를 주제로 행사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4일 국제학교 연합미술팀 데에이

(THE A)의 주관으로 꽃자왈 그림 그리기와 보물찾기, 꽃자왈 캐릭터 상품판매 등을 진행하고, 5일에는 관현악 앙상블팀 소노스(SONOS)의 공연과 함께 꽃자왈 탐방·알리미 프로젝트 팀 ‘온세미로’의 페이스페인팅, 친환경화분 만들기 체험부스 등이 각 팀의 재능기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5월 4일~11일에는 국제학교 연합미술

팀 데에이(THE A)의 ‘제주, 사라지는 것들을 그리다’라는 주제의 작품전이 도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진행된다. 문의 제주꽃자왈도립공원 홈페이지

(<http://www.jejugotjawal.or.kr>)나 탐방안내소 792-6047.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숲에서는 가족 대상 특별산림치유프로그램인 ‘엄부랑 행복담은 숲’을 다음달 5-6일 이틀간 운영한다. 부모는 숲에서 한껏 여유로운 시간으로 오감을 열고, 아이는 가족과 많은 자연물을 찾아 가족나무 만들기 등 자연과 교감하는 숲놀이 체험을 통해 가족간 소통과 사랑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7세 이상의 어린이와 부모 중 한 사람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1일 5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속기자 ms@ihalla.com

제주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한림·함덕·삼도1동 22세대

제주개발공사는 한림 행복주택 16세대를 비롯해 함덕과 삼도1동 행복주택 6세대를 포함한 총 22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중 신혼부부

세대의 결혼기간이 7년 이하로 변경되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입주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마음에 온’ 한림 행복주택은 청년 8세대,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6세대, 주거급여수급자 2세대로 총 16세대를 모집한다. 또한 마음에는 함덕(청년 2세대,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1세

대), 삼도일동(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1세대, 주거급여 2세대) 행복주택 일부세대의 예비입주자도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 내용은 지난 25일부터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주요 일간지 등에 공고 중이며, 현장 접수는 5월 19-21일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표성준기자

공기청정기

도내 최저가

AMSM993-IWK 99㎡(30평)
~~699,000원~~
639,000원

ATXH763-IWK 76.0㎡(23평)
~~599,000원~~
539,000원

AZBE380-IWK 39.6㎡(12평)
~~269,000원~~
239,000원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0